

적성산(赤城山)의 한여름밤

우리 고향에서 한 30리 가량 되는 곳에 적성산(赤城山)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허리가 마치 성벽 같은데, 가을이 되면 그 성벽이 빨강계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적성산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산이 빨간 치마를 두른 것 같기도 하다고 하여 적상산(赤裳山)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고향 어린이들은 어머니 품에 안겨 젖을 먹다가는 이 산을 손가락질하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나이 열 살이 넘으면 아버지 뒤를 따라 그곳으로 땀 나무를 패러 갑니다. 그러다 나이 들어 허리가 굽고 백발이 성성하면 마루 끝에 장죽을 물고 앉아 멀리 이 산을 바라보며 긴 해를 보냅니다. 노인네들의 대대로 전해 오는 말을 들으면 이 산이 생긴 이후로 아직 한 사람도 그 절벽에서 떨어져 횡사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벽 밑에 웅크리고 있는 맹수들도 이 산에 들어온 사람은 결코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우리 고향 사람들의 이 산에 대한 정감은 마치 어머니에 대한 그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용모와 마음이 뛰어나게 아름다움은 이 산의 정기를 타고 이 산의 애무 속에서 자란 까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느 해 여름방학에 나는 큰 괴로움을 안고 고향에 돌아갔었습니다.

예전 놀던 산으로 시냇가로 싸다니었으나 나의 괴로움은 좀처럼 멎지를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적성산에 올라가서 그곳 절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며 하룻밤을 새워 보려고 하였습니다. 이 산이 서러운 어린애로 하여금 눈물을 닦고 웃으며 일어서게 하는 그런 어머니의 품이 되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는 목은 절 앞 풀밭에 가 누워서 달을 기다렸습니다. 보름달이건만 앞을 가린 봉우리에 막혀서 스무날 달보다도 늦게 떴습니다. 그러나 그 달은 유독히도 푸르고 맑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이 그린, 절을 둘러싼 그림자는 호수보다도 깊었습니다. 달빛에 잠기자 못 풀벌레 소리는 한층 맑고 높아졌습니다.

나는 그만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심장의 고동도 쉬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얼마 동안이나 그곳에 정신을 잃고 누웠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박쥐가 집을 짓고 있는 마당 같이 넓은 나의 방에 돌아온 때는 아마 자정이 훨씬 넘었었을 것입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떡을 해 가지고 오랜만에 찾아 오셨습니다. 나는 설움이 복받쳐서 그 떡이 목에 걸려 그만 잠을 깨었습니다. 보니 달그림자가 창문 끝에 겨우 달려 있었습니까. 이윽고 밑에 절에서 새벽 염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해를 나는 전에 없이 거뜬한 마음으로 맞았습니다. (5월 26일 오전 2시)

《조광》, 2권 7호, 1936. 7. 1)